

연중 제34주일 복음 나누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십자가에 달린 왕(루카 23,35-43)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 루카 23,35-43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낸다. 본래 대축일 명칭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를 명시한다는 이유로 2017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변경됐다.

교회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정이 인간 세계에서 최악의 세력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각자 권리와 의무 이행, 더 나아가 그리스도왕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뜻을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교황 비오 11세가 1925년 교서 「첫째의 것」(Quas Primas)을 통해 제정, 공포했다. 그리스도왕(Christus Rex, Christ the King)의 의미를 성대히 기린다는 취지에서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칭호는 예수가 지닌 왕의 직능을 뜻한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가 다윗의 후예로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한다(마태 1,1-17). 또한 동방의 점성가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소개한다(마태 2,2)…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인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펼친 구세주이자, 구원을 위해 온 인류를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는 왕이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부른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데에도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제정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 왕정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누리고 인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정으로 더욱 새롭게 되도록 기원하게 된다. [가톨릭신문, 2020년 11월 22일]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6.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7.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 이어서 2022년 청년회 총회